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www.design.co.kr

2011 10

책으로 인테리어하라
플레이룸 아이디어 12
우리는 집에서 논다
가을은 광주의 계절

가을엔 생선찌개
국화의 매력
낭만가객 최백호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집

₩7,900

10



ISSN 1227 1152



이탈리아 파도바 공방 가구, 한국 시장에 리브콜을 보낸 까닭은?

떨어지는 낙엽조차 스타일리시할 것만 같은 이탈리아. 파도바Padova는 이탈리아 북동부의 작은 도시로 수공예 가구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얼마 전 파도바의 리빙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여섯 개 브랜드의 담당자들은 2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한국의 가구 쇼룸과 공방을 탐방하며 한국 파트너를 찾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을 펼쳤다. 글 이지현 기자 인물 사진 김용일

아르마니, 구찌, 페라가모, 카르텔, 알레시 등 디자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들 브랜드의 공통점은? 바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점이다. 1백50년 근대 디자인 역사에서 이탈리아가 세계 디자인의 주도권을 쥐고 오늘날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산업주의와 기능주의가 팽배하는 획일적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간과해온 인간성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기능은 물론 감성적 디자인, 즉 기계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이탈리아 장인들의 탁월한 수공예 기법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이탈리아 디자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밀접하게 자리 잡으며 사랑받고 있는 것. 이탈리아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공방 형태의 브랜드가 많다. 파도바Padova를 포함한 베네토 주 역시 5백여 곳의 가구 업체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매해 10월 생활용품&가구 축제 '카사 수 미수라Casa Su Misura'가 열리기도 한다. 파도바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먼저 대학을 설립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파도바 대학은 1592년부터 1610년까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클래식부터 컨템퍼러리까지

지난 6월 말, 파도바 지역에서 리빙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들이 한국을 찾

았다. 주거용 가구 브랜드 인터스타일Interstyle과 모데네세 가스토네Modenese Gastone, 주방 가구 브랜드 에페콰트로EffeQuattro, 인테리어용 도어업체 보스카 아레디Bosca Arredi, 은수공 전문 브랜드 비탈리브루노Vitali Bruno, 무대 방송 조명업체 베스트라이트Bestlight 등 모두 한국 시장 진출을 고려 중인 브랜드로,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선보인다. 단, 클래식 혹은 핸드크래프트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브랜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들 가구는 모두 자신들만의 자유분방하고 보헤미안적인 마인드로 클래식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컨템퍼러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수공예 제작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

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시대 흐름에 따라 디자인은 쓰임새있게 변형된 것이 대부분.

한국의 기술력, 이탈리아 감성과 만나다

역사를 자랑하는 인터스타일은 클래식과 모던 라인을 두루 갖춘 종합 가구 브랜드로, 방대한 아시아 시장과 그 중심에 있는 한국에 시장 규모를 높이 샀다. 사이즈와 소재, 색상 조절이 가능한 맞춤 가구를 선보이는 자신들의 브랜드 특성에 따라 곤지암, 광주 등지의 공방 중심가



1 도어 제조 업체 보스카 아레디의 제품 이미지. 2 지난 6월 24일, 한국 가구 브랜드를 탐방한 파도바 지역의 아시아 무역 담당자들이 심청각에 모여 한국의 맛을 즐긴다.